

時 論



柳錫春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중요한 일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조건의 역사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개혁·對北정책 등 할일두고

우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몰락 하면서 냉전이 해체되어 지구촌을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묶으려는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높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압축성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

이 같은 진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

나라면 현재 국정을 책임진 집단은 이러한 인식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반영해야 한다. 물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1997년 후반부터 구제금융을 대부분 상환한 2000년 초반까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국정의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구제금융의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영역과 관련된 4대 개혁 즉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그래서 일종의 당위로 추진되었다.

‘신문告示’ 보다 급한 일들

그러나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모든 정책결정은 국정을 책임진 집단의 판단이 좌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현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약분업'이다. IMF의 처방과는 관련 없는 영역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개혁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른 아닌 '교육개혁'과 대북 '포용정책'이다.

결과는 어떤가. 아직 진행중인 개혁을 현재의 시점에서 완벽하게 평가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중간상황을 점검하는

일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경제분야의 4대 개혁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구제금융을 모두 갚았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게 되었다. 심지어는 '유출한 국부로 나라 빛을 갚았을 뿐'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경제적 재도약은 고사하고 제2의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배적이다.

의약분업의 경우는 이미 실패가 확인

되었으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어진 계층간의 갈등 및 관련된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부조직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은 '교육이민' 현상이 평가를 대변하고 있다. 공교육은 무너져 버렸고 국민들은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한편 대북 포용정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기대하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 역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깊어만 가

고 있다. '총풍' '웃로비' '한빛은행' '경기은행' '조폐공사' '안기부 자금' 등과 같은 일련의 대형사건들은 하나같이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 의혹만을 증폭시킨 끝에 결국에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인사문제로 대표되는 지역대립이 여전히 철옹성과 같이 버티고 있다.

왜 國論만 갈리게 하나

이 상황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내외적인 도전과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판국에 대통령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언론개혁'이 느닷없이 언급되자 이제는 '신문고시'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다시금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신문고시' 없이도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우리인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정수행 능력은 결국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판가름난다. /연세대 교수·사회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